

# ‘도쿄돔의 기적’...“우리는 마이애미로 간다”

한국야구, 호주전 7대2...17년 만에 기적같은 8강 진출

### ‘2실점 이하 5점 차이상’ 바늘 구멍 뚫고 극적 결선 토너먼트행 14일 D조 도미니카공화국-베네수엘라전 승자와 4강행 격돌



한국 야구가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L) 8강 결선 리그에 진출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4차전 호주와 경기에서 7-2로 이겼다. 2승 2패를 기록한 한국은 대만, 호주와 동률을 이뤘으나 최소 실점률에서 앞서 일본(3승)에 이어 2위로 8강에 올랐다. 동물 팀간의 대결에서만 따진 실점률에서 한국이 0.1228, 대만과 호주가 0.1296을 기록해 우리나라가 두 나라를 밀어내고 미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리나라가 WBC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은 2009년 준우승 이후 이번이 17년 만이다. 한국이 8강에 오른 데는 실력과 함께 운도 따

랐다. 6-1로 앞서던 한국은 8회말 호수에 1점을 내줘 6-2로 쫓겼다. 이날 호주를 상대로 2실점 이하, 5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8강에 올 수 있었던 우리나라로서는 뼈아픈 실점이었다. 마지막 9회초 공격에서 최소 1점 이상을 뽑고, 9회말을 무실점으로 막아야 8강에 갈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 한국은 9회초 선두 타자 김도영(KIA 타이거즈)이 볼넷으로 출루하며 1사 1루 기회가 이어졌고,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타구는 투수 쪽으로 강하게 굴러갔다. 만일 이 공을 호주 투수 잭 오러클린이 잡았다면 1루 대주자 박해민(LG 트윈스)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병살타를 면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지난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L) C조 조별리그 최종전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 호주를 꺾고 8강 진출을 확정짓는 한국 대표팀이 기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대로 8강 희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서 타구가 투수 글러브를 맞고 유격수 쪽으로 흘렀고, 호주 유격수 제리드 데일이 급하게 2루로 던진 공은 실책이 되면서 1사 1, 3루가 됐다. 이후 나온 안현민(KT 위즈)의 외야 희생 플라이로 한국에는 결승점이나 다름없는 7점짜리가 되었다. 9회에는 수비 강화를 위해 박해민이 중견수, 이정후는 우익수로 수비 위치를 바꿨는데, 1사 1루 위기에서 호주 릭스 윈그로브의 잘 맞은 우중간 타구를 이정후가 어렵게 잡아냈다. 안현민이 계속 우익수였다면 잡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타구였다. 또 한국이 대만, 호주와 나란히 2승 2패를 기록하고도 조 2위가 된 상황에도 다소 운이 작용했다. 이번 대회는 동물이 나오면 먼저 동물인 팀들

의 상대 전적을 따지는데 한국과 대만, 호주는 서로 1승 1패씩 기록했기 때문에 최소 실점률을 따져 순위를 정하게 됐다. 동물 팀끼리 맞대결에서 나온 실점을 아웃카운트로 나는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한국과 대만, 호주는 상호 맞대결에서 똑같이 7실점씩 기록했다. 그런데도 한국이 최소 실점률에서 앞선 것은 아웃카운트를 더 많이 잡았기 때문이다. 대만은 호주에 0-3으로 패하면서 수비를 8이닝만 했고, 한국과는 연장 10회를 치러 총 이닝수가 18이닝이었다. 호주 역시 대만, 한국 경기에서 모두 9이닝씩 총 18이닝에 7실점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대만과 연장 10회, 이날 9회 등 총 19이닝에 7실점으로 호주, 대만에 비해 1이닝을 더 수비했다. 이로 인해 호주, 대만과 똑같이 7실점을 하고

도 최소 실점률에서 앞선 우리나라가 조 2위로 미국 마이애미를 향하게 됐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호주가 예상 밖으로 대만을 3-0으로 잡아온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0일 하루 휴식을 취한 대표팀은 11일로 넘어가는 자정 안팎 마이애미로 향하는 직항 전세기편에 탑승, 2라운드 장소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속속 도착 후 14일 오전 7시 30분으로 예정된 8강전을 준비한다. 한국의 8강 상대는 D조 1위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D조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가 나란히 3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 12일 조 1위를 놓고 맞대결을 벌인다. 승리 팀이 한국과 4강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L) C조 조별 예선 결과**

■ WBC 전체 조별리그 2026년 3월 5일 - 12일, 8강전-결승전 3월 14일-18일(한국시간 기준)  
■ 개최국 일본 푸에르토리코-미국

**C조 순위** 3월 9일 현재

순위	국가	경기	승	패	최소 실점률*
1	일본	3	3	0	-
2	한국	4	2	2	0.1228
3	호주	4	2	2	0.1296
4	대만	4	2	2	0.1296
5	체코	3	0	3	-

\*동물을 이룬 한국-호주-대만 간의 대결에서만 따진 실점률

**8강전**

경기	시각
3월 14일 오전 7시 30분 (미국 마이애미)	3월 15일 오전 10시 (미국 마이애미)
한국(C조 2위)	D조 2위
D조 1위	일본(C조 1위)

8강 토너먼트 각 조 승률 상위 2개 팀 진출

자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L) /연합뉴스

##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뤄낸 성과”

광주FC '수호신' 김경민,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금지탐'



프로축구 광주FC의 '철벽 수문장' 김경민이 K리그 통산 200경기를 달성했다. 김경민은 지난 7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2014년 제주유나이티드(현 제주SK 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경민은 이후 부산아이파크(임대), 포천시민축구단(군복무), 서울이랜드 FC 등을 거치며 꾸준한 경력을 쌓아왔다. 2022년 광주에 입단한 김경민은 합류 직후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으며 팀의 최후방을 책임졌다. 입단 첫 시즌부터 김경민은 K리그1 베스트11

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광주FC의 K리그1 최다승 및 최다 승점 신기록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경민은 단순한 선방 능력을 넘어 빌드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 전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에는 생애 첫 국가대표에도 발탁되는 등 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200경기를 맞이한 김경민은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이렇게 K리그 200경기까지 오게 됐다”며 “모든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족들과 기회를 주신 감독님을 비롯한 팀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넘치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김경민이 지난 7일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종료 직전 무고사의 패널티킥을 막아낸 후 기뻐하고 있다. <광주FC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FC '첫 승' 주역 최경록·신창무·김경민

## K리그1 2라운드 '베스트11' 선정

이정규 광주FC 감독에게 사령탑 데뷔 첫 승을 안긴 최경록, 신창무, 김경민이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FC는 지난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 3대2로 승리했다. 최경록은 이날 전반 37분 선제골로 승리의 물꼬를 텄고, 신창무는 후반 초반 패널티킥을 침착하게 마무리했고, 후반 26분에는 환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하며 팀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3대1로 앞서가던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실점하며 흔들렸고, 종료 1분전 패널티킥까지 내주며 동점 위기에 몰렸다. 골키퍼 김경민은 절체절명 위기에서 무고사의 패널티킥을 슈퍼세이버로 막아내며 값진 승점 3점을 지켜냈다. 한편 최우수선수(MVP)는 제주SK FC와의 경기에서 '후반전 멀티골'로 FC안양의 마수걸이 승리를 이끈 마테우스가 뽑혔다. 베스트 팀에는 안양, 제주와 안양의 경기는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박희중 기자

## 전남 동계스포츠 빛낸 김찬우·조다은 꿈나무상·다관왕상 수상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남을 빛낸 김찬우(화순초 6)와 조다은(전남체고 1)이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체육회는 10일 “김찬우와 조다은이 오는 13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리는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꿈나무상과 다관왕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김찬우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U-12 최다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꿈나무상과 다관왕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다은은 크로스컨트리 종목 4관왕에 등극하며 다관왕상을 수상했다. 조다은은 2022년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꿈나무상을 수상하며 유망주로 이름을 알린 이후, 제104회·제105회 대회에서도 각각 5관왕에 오르는 등 꾸준한 다관왕 행진을 이어왔다.



전국동계체전에서 전남을 빛낸 김찬우(왼쪽)와 조다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두 선수가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선수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전남 동계스포츠의 육성 시스템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망주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남 동계체육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 ‘금1·동1’ 목표 조기 달성 한국, 컬링도 4강 안착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 폐쇄 동계 패럴림픽에 나선 대한민국 장애인 대표팀이 대회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데 이어, 컬링에서 승진보를 전하며 기세를 올렸다. 대한민국은 10일 메달을 추가하지는 못했으나 앞서 김윤지(바이애슬론)와 이재혁(스노보드)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 목표표로 내걸었던 ‘금1·동1’을 이미 달성했다. 메달 소식은 잠시 쉬어갔지만, 컬링장에서는 연이은 낭보가 들렸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세계랭킹 1위인 백혜진(43)-이용석(42·이상 경기도장애인

단체육회) 조는 이날 예선 최종 7차전에서 에스토니아(7위)를 10-0으로 완파하며 6번드 기권승을 거뒀다. 이로써 예선 최종 합계 4승 3패를 기록한 한국은 전체 3위로 4강 진출을 확정했다. 4인조 혼성팀도 예선 4, 5차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동반 4강 진출에 청신호를 켜다. 남봉광-방민자(전남도장애인체육회)-양희태-이현출-차진호로 구성된 대표팀은 이날 영국(7-6 승)에 이어 오후 슬로바키아(7-5 승)를 잇달아 제압하며 하루에만 2승을 수확했다. 중간 합계 3승 2패를 기록한 혼성팀은 남은 예선 경기에서 최소 2승을 더 확보할 경우 준결승 토너먼트에 합류하게 된다. /연합뉴스